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담양군, 관광객 수요에 맞는 맞춤형 여행 설계 기반 구축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위한 체험관광연구회 구성 협약 체결



담양군은 지난 14일 체험관광연구회 결성을 위해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14개 공동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운수대통행산촌휴양마을을 사업단 운영민 위원장을 비롯한 14개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대표와 김하성 담양군 풀뿌리공

농체지원센터장, 최형식 담양군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체험관광연구회는 앞으로 담빛체험여행사업단을 구성하여 담양의 관광·체험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객의 요구에 맞는 농촌문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개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체험관광연구회가 활성화되고 참여 공동체가 확대돼 담양 농촌의 지속 가능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앞으로 농업분야 신 6차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흥군, 201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닷 올린다

내달 8일부터 7일간

장흥군은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장흥군 인양면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201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장흥군은 지난 2002년 자생 약초 250여종을 토대로 2006년 생약초 한방특구로 지정되면서 통합의학단계에 들어들었다.

2010년부터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해 통합의학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

람회 개최와 2017년 통합의학 진료 및 연구, 교육을 시행하는 양·

한방 협진 국가시범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을 개원으로 명실상부 통합의학의 대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201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12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의학·한의학·대체보완의학·힐링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10월 13일은 국내 저명한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의료진을 초빙하여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전립선 건강 강좌와 무료 검진을 시행한다.

10월 14일은 통합의학 학술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학술행사는 시민법인 대한통합학회와 공동으로 10월 14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되고, 국내학술행사는 대한통합의학회와 공동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장흥군은 201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인 장흥·화순·나주 생활의약밸트 사업 국비 확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영암군, ‘세입통합 ARS간편 납부 서비스’ 시작

영암군은 이달부터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 부담금·상하수도 요금을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365일 연중 가능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법 규정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

부담금·상하수도 요금의 부과·징수는 물론 체납 등 시후관리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납세자가 불편하고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공은 물론 징수율을 제고해 복리혜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납세자는 대표전화(061-470-1070)를 걸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가상계좌 안내, 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 결제, 신용카드 자동 결제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이어서 지방세 환급 신청과 자동차세 연납 신청도 가능하다.

영암=조대호 기자

화순군, 추석연휴 손님맞이 종합대책 수립시행

2개반 11분야 160명 투입 종합상황실 운영

화순군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7일부터 ‘추석맞이 군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소외계층 지원, 물가안정, 체불임금 해소, 교통소통, 성묘객 편의 증진, 안전관리, 비상진료, 환경정비, 급수, 공직기강 확립등 11개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2개반 11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과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대책반을 운영해 총 160명이 비상근무를 향으로써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

화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대비에 민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라, 명절 기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20개 복지시설과 단체,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이웃 1,503명에게 위문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심기위해 일제대 청소, 노상 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거리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호 부군수는 “물가안정과 소외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군민 불편 해소 등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화순군,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성폭력·안전사고 예방교육



교육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팀장 213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제일대학교 선순자 교수가 ‘성인지 감수성 형상을 통한 생활속 폭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선교수는 사례 유형별로 성폭력의 원인,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성폭력 예방과 신고를 통한 생활속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하니움 민연홀에서 실시된

별 행동유형과 예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치매예방제조도 함께 따라하는 시간을 가져 호응이 좋았다.

군 관계자는 “성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고 안전한 노인 일자리 참여가 되도록 힘쓰겠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자전거도 차!’ 여수시 국민디자인단 인식개선 캠페인

동호회원 등 100여명 자전거로 여수일대 15km 행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연구하는 여수시 국민디자인단이 ‘자전거도 차’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자전거에 부착 후 시청~쌍봉사거리~미동동~선원동~시청 15km를 행진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 국민디자인단은 15일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수일대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제76차 여수 YMCA 두바퀴세상 자전거 동호회의 월중 캠페인과 함께 진행됐다.

디자인단과 동호회원 시민 등 100여 명은 이날 ‘자전거도 차’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자전거에 부착 후 시청~쌍봉사거리~미동동~선원동~시청 15km를 행진했다.

많은 자전거가 함께한 만큼 캠페인은 자동차 운전자를 포함해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디자인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로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